

Japan Weekly Digest

2011. 8. 13. ~ 8. 19.

☐ 금주의 이슈

- 일본 재정재건에 적신호
- 애니메이션 분야 민·관 공동 해외진출

☐ 일본기업전략

- 도시바, 반도체 개발전략 재편
- 일본 의류메이커들 중국생산비율을 대폭 낮춰
- 도시바 신흥국에서 액정TV 개발

☐ 경제산업성 동향

-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제도 창설 제안
- FTA활용기업 60%가 매출 증가

☐ 보고서 리뷰

- 『일본경제정보』 이토츠허경제연구소, 8월 18일



협회 한일경제협회
Korea-Japan Economic Association

※ 자료제공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http://www.kje.or.kr>)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사오며,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02-3014-9888)

◆ 금주의 이슈

□ 일본 재정재건에 적신호

- 일본 내각부가 8월 12일 각의에 제출한 「경제재정의 중장기시산」에 의하면, 2020년 중앙·지방정부의 부채는 GDP의 200%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재정상황이 전개될 전망
- 2011년도 중앙·지방정부의 공채잔고는 GDP대비 181%, 향후 1%이상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소비세율이 2015년도에 5%인상되더라도 공채잔고비율은 210%로 악화 (금년 4월 IMF기준으로는 일본이 230%로 그리스 152%, 이탈리아120%, 미국 98% 등보다도 훨씬 높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의 채무불안을 계기로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엔고를 발생시키는 이유와 관련하여, 시장관계자들이 하나같이 거론하는 요인으로는 소비세의 증세여지가 있는 점, 경상수지 흑자, 국채의 소화비율이 높은 점 등 세 가지임
- 첫째, 소비세율이 20%전후로 높은 수준에 있어 증세를 기대할 수 없는 유럽 국가들에 비하면, 일본의 소비세율은 선진국중 가장 낮음. 둘째,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셋째, 국채잔고의 90%이상이 국내투자자들에게 의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될 우려가 적음
- 그러나 이러한 강점이 언제까지나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음. 소비세의 증세가 대표적인 예임. 사회보장 및 조세 관련 제도의 정부개혁안에 2010년대 중반까지는 단계적으로 10%인상한다고 명기되어 있으나 디플레 탈피목표가 서있지 않은데다, 지진재해대책 등 새로운 지출증가, 2017년에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될 것이라는 전망 등도 재정재건에 걸림돌로 작용

□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민·관 공동으로 해외진출

-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관·민 공동출자한 투자회사 산업혁신기구가 금년 10월 목표로 전액 출자한 해외컨텐츠개발회사인 「올닛폰·엔터테인먼트·워크스」를 설립, 여기에 일본내 콘텐츠·미디어관련 기업들도 참여 예정
- 산업혁신기구는 2009년 7월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영 투자펀드회사로서, 일본의 새로운 기술, 벤처기업, 기업의 해외사업 등을 지원, 이제까지 도시바와 공동으로 해외대기업을 매수한 외에 지적재산권펀드 LSIP에 대한 투자도 하고 있음

◆ 일본기업전략

□ 도시바, 반도체 종류를 절반으로 줄여 지진재해에 대응, 소량다품종전략 바뀌

- 도시바는 마이콘 등 자동차나 전자기기 등에 널리 사용되는 반도체의 종류를 삭감, 용도나 고객, 기능에 대응하여 5,000~6,000종류의 제품을 금년 중 절반으로 줄임
- 자동차메이커 등 수요기업의 요망에 부응하여 설계해 온 특별주문품을 줄여 개발·생산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지진 등으로 공장이 피해를 입을 경우 다른 거점에서 대체생산이 용이토록 하기 위함
-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는 르네사스일렉트론닉스(주)도 마이콘 등의 설계공동화에 착수하고 있음. 이제까지 자동차나 전기제품의 부품메이커를 중심으로 수익 압박요인이 되어 온 소량다품종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될 전망

□ 일본의 주요 의류메이커들 중국생산비율을 대폭 낮춰

- 아오야마 상사, 양품계획 등 일본의 주요 의류·잡화메이커들이 인건비 급등으로 중국 생산비율을 50%이하로 대폭 낮추고 있음. 현재 아오야마 상사와 양품계획의 중국에서의 생산비율은 각각 75%, 60%인데 앞으로 3년 후 50%이하로 낮출 방침
- 1990년대 이후 의류메이커들은 인건비가 싼 이유로 중국에서 의류를 생산, 디플레이션에 일본에서 급성장함. 그러나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의 인건비가 2배로 상승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경우 인건비가 중국의 1/5수준임. 이 때문에 최신 기계만 있으면 숙련공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봉제거점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시작

□ 도시바 신흥국에서 액정TV 개발 : 인도 등 3개국에 거점, 현지사양 확충, 한국기업에 대응

- 도시바가 신흥국에서 액정TV 개발에 착수함.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에 디자인거점을 설치하고 금년 10월부터 현지 사양의 제품을 기획, 2012년 이후 설계나 소프트웨어개발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현지수요를 반영하기 쉬운 체제를 구축
- 전용 모델을 확충,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에게 대항, 신흥국시장 판매비율을 현재 약 20%에서 2013년까지 약 5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 경제산업성 동향

□ 산업구조심의회, 새로운 국가 프로젝트제도 창설 제안

○ 배경

-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은 1970년 오일쇼크시보다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기존 기술의 연장선상에서는 불가능한 꿈의 비연속형 기술혁신에 의한 재생이 필요하다는 판단
- 「산업구조심의회 산업기술분과회 연구개발소위원회」에서는 국가주도의 새로운 연구개발분야를 선정, 중점 연구연구개발 분야나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의 국가 프로젝트 제도 창설을 검토

○ 제안 포인트

- 대상기술을 환경·에너지 제약, 저출산·고령화 분야에 응용할 수 있고 일본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비연속형 기술에 중점적으로 사용
- 과거 국가프로젝트로부터의 교훈 등을 참작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 정부 전체로서 프로젝트(기간, 예산, 시장도입목표 등)를 결정
- 프로젝트 전체의 효과를 확실하게 사업화로 직결시키기 위해서는 성과를 강자연합으로 일원화하여 관리케 하는 것이 최적

□ 경제산업성 조사 결과 : FTA활용기업의 60%가 매출 증가

- 경제산업성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금년 3월 실시)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의 60%가 매출액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음
-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FTA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60% 증가, 8%가 감소로 나타남. FTA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에서는 증가가 42%, 감소가 12%로 각각 나타남
- 영업이익율에 대해서는 활용기업의 59%가 상승, 6%가 저하할 것이라고 응답, 활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은 상승이 38%, 저하가 19%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FTA에 의한 무역·투자 자유화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경영실적이 좌우

◆ 보고서 리뷰

『일본경제정보』 이토츠허경제연구소, 8월 18일

*출처: <http://www.maruyama-yo@itochu.co.jp.pdf>

□ 일본경제 금년 3/4분기 이후에나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

- 금년 2/4분기 일본경제는 전기비 -0.3% 성장, 연률로는 -1.3%로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3/4분기에는 수출, 개인소비 회복으로 큰 폭의 플러스 성장이 확실시, 광공업생산도 크게 증가

□ 일본경제 전망 : 세 가지 중요 포인트

- 금년 4/4분기 이후 일본경제 전망과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 점이 중요
 - 첫째는 해외경제변수로 선진국경제의 감속은 불가피하나 신흥국들의 주도로 완만한 성장이 가능
 - 둘째는 엔고요인임. 엔고는 전력공급이나 전력비용 상승과 더불어 일본산업의 해외이전을 가속화시키고 국내 설비투자를 억제
 - 셋째는 정책적 요인임. 본격적인 부흥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제3차 추경예산의 조기성립이 필요하나 현재 일본정부여당의 정치적 상황으로 보아 예산성립이 늦어질 가능성이 큼. 또한 부흥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부담증가와 관련해서도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배려가 요구

□ 내년 경제성장율, 엔고 진행으로 하향 조정

- 금년도 경제성장율은 0.6%로 전망되는 한편, 내년도에는 엔고 진행으로 인한 수출·설비투자에 악영향으로 당초의 2.5%에서 2.2%로 하향조정, 2013년도에는 1.7%의 성장이 예상
- 한편, 소비자물가상승율은 금년도 -0.3%에서 내년도에는 -0.6%, 2013년도에는 0.0%, 일본은행은 최소한 2013년 4/4분기 전까지는 금리인상을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내년도에도 엔고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부흥수요증가 → 정부지출증가에 따른 크라우드아웃효과 발생 → 금리상승 → 엔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금리인상으로 인한 디플레 가능성을 매우 경계하고 있음

【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

- (1) 『일본경제정보』 이토추경제연구소, 8월18일

*출처: http://www.itochu.co.jp/ja/business/economic_monitor/pdf/2011/20110816_JP.pdf

- (2) 『지방에서 과세자주권 확대에 따른 경제효과』 일본국회도서관, 8월19일

*출처: <http://www.ndl.go.jp/jp/data/publication/refer/pdf/072703.pdf>

- (3) 『일본 의료비 미래 : 의료비 증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재무종합정책연구소, 8월16일

*출처: http://www.mof.go.jp/pri/research/special_report/f01_2011_02.pdf

- (4) 『정책추진의 전체상』 일본내각부, 8월16일

*출처: <http://www5.cao.go.jp/keizai/bousai/pdf/zentaizou.pdf>

- (5) 『왜 기업은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는가』 경제산업연구소, 8월13일

*출처: <http://www.rieti.go.jp/users/tanaka-ayumu/serial/006.html>

- (6) 『공동화대책이 필요한 시점』 메이지야스다생명, 8월13일

*출처: http://www3.keizaireport.com/file/economy201108_01.pdf